

검역원 수입 조사료 검역 현장을 가다

- 국내 검역장에서 현물검사, 시료채취 후 훈증소독
- 철저한 검역, 구제역 유입 방지 안심

최근 해외 여행객 증가와 축산물 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유입 방지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돼지만성소모성질병 등 국내 상재질병으로 인해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음을 고려하면, 해외전염병의 유입은 국내 양돈산업의 존폐를 위협할 중요사안이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 10월 13일 국내 축산관련단체 실무자들을 초청해 중국산 조사료의 검역절차를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수입 조사료 검역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구제역 상시 발생국인 중국에서의 조사료 수입검역에 있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내 농장예찰과 국경방역을 위한강화에 더욱 신경을 써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일선 검역현장에서 수고하는 검역관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 수입 조사료 검역절차 어떻게 이루어지나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중국산 수입 조사료의 검역은 먼저 우리나라가 지정한 현지 작업장에서 1차 소독을 거친 후 선적되어 인천항에 검역물이 입항하면 검역관이 선상검사를 하고 검역장으로 운송(검역물 운송통보서 발급), 검역신청, 현물검

사 및 검사시료 채취, 구제역정밀검사 의뢰, 소독 명령(포르말린 훈증소독), 소독실시 입회 및 익일 환기확인, 구제역정밀검사결과 확인, 검역증명서의 과정을 거쳐 합격판정이 나면 국내유통이 되고 불합격 판정이 나면 반송 또는 폐기된다.

1차 현물검사 이어 2차 포르말린 훈증소독 거쳐

수입산 조사료의 현물검사 및 시료채취를 통해 동물의 분변, 분비물 등 이물질 혼입 여부를 확인한다. 컨테이너나 톤백으로 수입된 조사료의 경우 2~5개의 베일을 무작위 선정 해체 추출검사를 실시하는데 검역관과 감시견이 육안으로 직접 운송용기 파손여부 및 봉인을 확인하고 동물의 분변 등 확인하고 이중 시료 1000g를 채취해 검역원 해외전병염병과에 구제역 정밀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 이물질 발견시 폐기 및 반송조치

현물검사 결과 분변 등 이물질 혼입이나 톤백 파손 등이 발견되면 해당 컨테이너 또는 톤백은 전량 폐기되거나 반송된다. 검역관의 현물검사 합격이 되면 포르말린 훈증소독을 거쳐 국내 양축가에게 수입 조사료가 도착될 때까지 2, 3차의 소독

검역원 수입 조사료 검역 현장을 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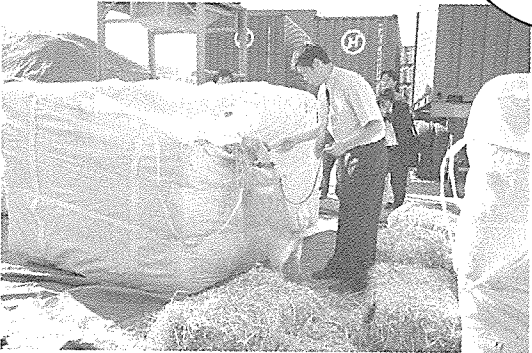


▲ 국립수의과학연구원은 지난 13일 축산관련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항에서 중국산 조사료 검역 상황을 설명했다.(사진은 검역원 인천지원 김효정(좌), 조명진 검역관이 중국산 밀짚을 현물검사하고 있는 장면)



▲ 컨테이너나 톤백으로 수입된 조사료의 경우 2~5개의 배일을 무작위 선정 해체 추출검사를 실시한다.

수입 조사료 검역 현장



▲ 검역관과 감시관이 육안으로 직접 운송용기 파손여부 및 봉인을 확인하고 동물의 분변 등 확인한다.



▲ 인천항에 입항한 검역물을 소독하는 장면. 수입 검역물이 국내 양축가에 도착할 때까지 최소 2~3회의 소독을 거치게 된다.

이 이뤄진다.

임경중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인천지원장은 “철저한 검사와 방역을 통해 해외에서 유입되는 주요 가축질병을 예방함으로써 양축가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수입검역의 관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까다로운 검역절차에 구제역 유입방지 안심

이날 현장을 방문한 축산관련단체 실무자들은 검역관들의 노고에 감사하면서 조사료로 인한 국내 구제역 유입에 대해서는 안심할 수 있다는 표

정이었다. 박창규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 조사료팀 과장도 “지금 수준의 검역절차로 볼 때 최소한 중국산 수입 조사료로 인한 구제역 유입은 철저하게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며 까다로운 검역절차에 안심하는 모습이였다.

이에 허창열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검사과 사무관은 “현장의 엄격한 검역절차는 통해 해외악성전염병 유입방지에 목적이 있다”며 이번 설명회 등을 통해 축산관련단체들에게 검역현장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향후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준**